

제9차 한중일 30인 회의 [요약]

< 30인 회의 정책 제안 포인트 >

- 한중일 3개국 고위급 회담 조기 재개
- 아시아의 인프라·금융시장 발전을 위해 3개국이 주도하는 새로운 개발은행 설립
- 한중일 FTA 조기 타결로 동아시아 역내 경제통합 진전에 기여
- 자원·환경 문제에 대한 공동협력 추진
- 청소년 교류 활성화, 공동안자 이용·보급 촉진

□ 제9차 한중일 30인 회의 개최

- 2014년 4월 22일에 제9차 한중일 30인 회의가 중국의 장쑤성(江蘇省) 양저우(揚州)시에서 개최
 - 한중일 30인 회의란 동북아지역의 발전과 상호이해 촉진을 목적으로 2006년부터 시작, 3개국의 政·財·官·學 각 분야의 리더 약 30명이 매년 모여 비공개로 진행
 - 멤버는 각국의 정치원로, 경제인, 석학들 10명씩으로 구성된 대표단이며, 한국의 중앙일보, 중국의 신화통신, 일본의 닛케이신문 등이 주관기관임
- 중국 외교부 류젠차오 차관보는 4월 21일에 개최된 리셉션에서 “한중일 3개국은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진하는 원동력”이라면서, “미래지향적으로 역사를 존중하면서 실무적인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”고 강조
- 9차 회의, 한중일 대표단 단장은 이홍구 전 총리(한국), 쩡페이옌 부총리(중국),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(일본) 등임
 - 이홍구 전 총리는 “한중일을 포함한 국제정세가 긴장 국면에 들어가고 있다”고 우려하면서 “역사라는 과제에 직면한 3개국은 우리 문명이 축적한 지혜를 가동시켜 공생하는 길을 찾아 나가야 한다”고 언급
 - 쩡페이옌 부총리는 “의견의 불일치를 넘어 경제를 중심으로 한 지역통합을 위해 보조를 맞춰야 한다”며, “사소한 일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지향적이고 성의를 갖고 역사문제를 해결해야 한다”고 강조

- 후쿠다 야스오 전 총리는 “현재의 한중일 관계는 심각한 상태”라고 위기감을 지적하면서 고령화 등 공통과제 해결을 고려한 “장기적 발전과 번영을 위해 협력해 나가야 한다”고 주장

□ 주요 정책 제언 내용

- 동아시아 운명공동체의 이념을 확립하고 공통·인식하여 동북아시아 협력의 새로운 비전을 개척
- 역사·영토 문제의 해결을 위해 한중일 정상이 자주 만나 의견교환을 통해 오해를 풀면서 상호신뢰관계를 구축해 나가야 함
- 우선 국장·차관·장관 등 고위급 회의부터 재개하고 ‘동북아시아 협력 정상화’로 이어지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
 - * ‘14년 11월 베이징에서 개최될 APEC에서 한중일 정상의 접점이 기대됨
- 자국통화표시 무역결제 비율을 확대시켜 한중일 3개국 통화의 직접교환시장을 정비
- 한중일FTA나 RCEP은 TPP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, 한중일FTA의 조기 비준을 추진
- 한국과 일본은 환경분야의 선진기술을 가진 국가로서 중국의 대기오염대책이나 에너지절약 등에 협력
- 3개국의 자원에 관한 국제적 발언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자원당국간의 정기적인 협조 메커니즘을 창설
- 미래 비전으로 3개국 관계 안정을 위해 젊은이들 간의 교류 활성화를 추진시켜 국민감정 악화를 완화
- 제8차 회의에서 책정한 808개의 ‘공통한자’를 ‘20년 도쿄올림픽 안내판에 사용하는 등 이용 및 보급을 촉진하고 문화교류를 추진

<참고자료>

닛케이신문(2014.4.22/23), 인민망(人民網) 일본어판(2014.4.23)

〈참고〉 과거 한중일 30인 회의 개요

일시	논의 내용
제1차 회의 2006.2.12.-13. (한국 서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아시아 국가간 외화 공동관리 및 아시아 기축통화 창설 강조 - 한중일 FTA 체결 및 동북아 철강공동체 설립 제안 - 한중일 음악제 등 공동문화행사 제안
제2차 회의 2007.4.15.-16. (일본 도쿄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역내 공동기금 창설 및 아시아 통화단위 조기 구성 - 동아시아 환경펀드 조성, 원유 공동구입, 환경기술 혁신센터 설립 - 3국간 대규모 유학생 교환
제3차 회의 2008.4.28. (중국 북경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한중일 FTA 조기 체결 - 3국 기후변화 연구센터 설립 - 성과/합의 : 에너지 및 환경 관련 동북아 포럼 창설
제4차 회의 2009.4.12. (한국 부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 주제 : 글로벌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안 모색 - IMF에서의 중국 발언권 제고 필요, AMF 설립 논의를 위한 사무국 설립, 금융협력을 위한 공동 연구센터 설립 등 7개항의 對정부제안서 채택
제5차 회의 2010.4.19. (일본 나라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 주제 : 역대 한중일 30인회 제안사항의 3국 정상회의 반영 여부 평가 - 각 분과별 주요 제언 : (경제·통상) △아시아 역내 외화준비금 공동운용 △아시아인프라펀드 구축 △3국 공통표준 마련 △아시아채권시장이니셔티브(ABMI)의 로드맵 구축을 통한 역내 금융시장 통합 도모 등 (환경) △3국 탄소시장협의회 구축 △정부·기업·연구기관의 환경 협력사업을 총괄하는 ‘동북아 녹색성장 이니셔티브’ 구축, △황사방지대책기금 설립 △친환경 에너지 개발 협력 등 (문화·교육) △3국 공동 필수한자 500개 선정, 학교교육에 도입, △동아시아 공통교과서 작성, △동아시아경영대학원 설립, △3국 청소년간 역사 유적지 탐방 정례화 등
제6차 회의 2011.4.24.-25. (중국 항저우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회의 주제 : 3국의 종합방지대책 협의체 및 재해 공동관리시스템 구성 - 각 분과별 주요 제언 : (경제·통상) △한중일 FTA 체결을 위한 정치적 결단 필요, △중국의 자본시장 개방 로드맵 제시 (환경) △2011년 3국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안전 협의체 논의, △핵 정상회의에서 원자력 안전 의제 상정 (문화·교육) △문화충돌 방지를 위한 3국 문화자문위 구성

<p>제7차 회의 2012.4.16. (한국 서울)</p>	<p>- 회의 주제 : 세계 경제 불확실성과 한중일 3국 협력</p> <p>- 각 분과별 주요 제언 :</p> <p>(금융·무역)</p> <p>△국제 금융위기 사전예방 감시체제 강화, △아시아 금융연구·훈련센터와 아시아 투자펀드 설치 필요성 합의, △3국간 FTA의 경제적 효과 기대</p> <p>(환경)</p> <p>△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3국간 표준화 노력, △3국간 공동 협의체를 통한 원자력에너지 안정성 확보, △국가간 에너지 슈퍼그리드화(supergrid)를 목표로 논의 시작 필요</p> <p>(문화·교육)</p> <p>△3국간 문화재 공유 및 교류촉진 프로그램 창설, △문화·교육 분야 관련 회의 개최 제안</p>
<p>제8차 회의 2013.7.8. (일본 홋카이도)</p>	<p>- 회의 주제 : 새로운 시대의 연계 탐색</p> <p>- 각 분과별 주요 제언 :</p> <p>(금융·무역)</p> <p>△한중일FTA, RCEP 등에 관해서는 체결 가능성이 높은 것부터 추진, △금융 정세의 불안정화에 대비하여 한중일 간에서 외화를 유통하는 「치앙마이·이니셔티브(CMI)」 출자금을 증액, △아시아 국가들 간에서 경제 정세의 감시를 강화, IMF의 아시아판·아시아통화기금(AMF)을 설립, △증권시장을 확충하는 데 기업의 신용을 보완시키기 위해 「아시아채권시장육성이니셔티브(ABMI)」를 설립, △한중일 공동 인프라 펀드 설립, △급속한 저출산·고령화와 공용문제에 대한 대책·노하우 공유</p> <p>(환경·에너지)</p> <p>△에너지 안전은 3국의 공통문제로 인식, 한중일 협조 메커니즘을 통해 핵 에너지 안전을 위해 협력, △에너지 효율이 좋은 기기의 판매, 수출입에 우대조치 도입, △에너지 효율이나 PM2.5 등 국경을 초월한 환경오염 대책을 위한 표준화협력. 세일 가스 개발의 가능성 모색, △CO2 삭감이나 친환경 주택의 창조를 위해 한중일 간에서 목조주택을 연구, △한중일 간에서 생물다양성환경보전에 대해 공동연구 및 「북극해 협력 연구회」를 설치</p> <p>(문화·교육·민간교류)</p> <p>△「공통기본 800 한자 시안」을 공표*, 3국의 연구자는 기본한자에 대해 더욱 협의하고 해석 등의 개선을 추진**, △젊은이 간의 직접교류를 촉진, 3국의 차세대 리더를 육성, △중견기술자의 육성 협력</p> <p>* 3국의 사용빈도가 높은 한자를 「공통기본 800 한자 시안」 작성. 한국에서는 801개 한자, 일본은 710개 한자, 중국은 801개 한자를 유니코드에 따라 정리된 한자 일람과 3국의 한자를 비교한 표를 작성.</p> <p>** 2013년 10월 23~24일. 3국의 공통기본 800개 한자를 정리하기 위해 「국제학술 심포지엄」이 중국·베이징에서 개최, 3국의 전문가들이 808개 기본한자에 합의.</p>

자료 : 한중일 3국 협력 사무국 홈페이지